

목양칼럼



김성광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중경총회장
· 강남교회 당회장
· 강남급식기도원 원장
· 북한민주화위원회 상임고문
· 연세대학교신학대학원 객원교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자

강해야 승리한다

- 강한 도전으로 승리하는 삶 -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이 두려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연합하여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주민을 공격했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결국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 승리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과, 형통하게 되고, 승리한다는 것이다.

첫째, 땅을 차지한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땅의 축복은 재물의 축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안된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았으나 우리는 또한 온유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재물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찼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나라가 부강해지는 형통

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맛본 사람은 자신의 앞에 닥칠 더 큰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해지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하게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더욱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우리를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가난, 절망, 질병, 사업, 죄,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강함이 우리를 재물로 형통함으로 그리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정

이창 목사 신춘문예 소설 당선



본 교단 증경 총회장 이창 목사는 그동안 시 전문계간지 (시와 시학)의 신인상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1년도 기독교 신춘문예에서 소설이 당선되어 소설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창 목사는 지난해에도 신춘문예에 소설이 가장 입상되었던 바 급년에 다시 소설이 당선되므로 명실공히 온전한 소설가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김동권 목사 "지지에 감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서 세번째 낙선한 김동권 목사(진주교회 원로)가 이쁨을 받고 자신을 지지해준 실행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목사는 "당선을 위해 뛰어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며 "직접 지지하지 못했지만 생각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광원 장로 교진주 회장에



교과서전회론개정추진회 신임회장에 한 국장조과학회 이광원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교진주는 최근 서울 도립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교과서 진화론개정 운동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신임회장은 "올 6월부터 교육과 학기술부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청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공21 회장에 신진수 장로



전국의 20만 회원이 확보하고 건강한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공21이 구급 9월 렉싱턴호텔에서 '3주년 감사예배 및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신진수 장로를 선임했다. 성공21은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민족을 위한 기도모임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 사회의 한 앞의 밑알이 되어 씌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작은 실천자 바나바가 되어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정우웅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상임운영위원
· 서울남서지방 회장
· 대림벨렐교회 담임
· 평창대림벨렐수양관 원장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목표와 결단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올 한해 성경 속 인물들을 따라 그들의 믿음과 선한 행위를 닮고자 노력하거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한명을 뽑아야 한다면 바로 바나바를 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타인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주의와 분리주의가 교회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맑고 싶은 바나바

(행 4:32-37)

요 오늘 이 시간 바나바에 대해 알고 그의 믿음의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바나바의 인격과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무로의 착한 사람입니다. (행4:36 ; 11:24)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교회지역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헌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이따나 부동산처럼 확실한 재산이 없었나 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헌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난했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36절) 이는 "격려의 아들" "믿고 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권고 받고 위로 받고 도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더욱이 모세의 율법과 유전의 계율로 짓눌린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초대 교회의 상황 아래에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진정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미25:21) 하 고 칭찬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맑은 증 보자였습니다. (행9:27)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행11 :26) 막힌 담이 두꺼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 박해를 일으킨 주동자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행8:1).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니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갈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대대세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을 전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행 9:27).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몰하며 함께 살고 같이 교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화목의 삶을 바나바는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있던 후에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 든히 서가고" (행9:31)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숨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셋째, 바나바는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행11:24)

사도행전 11:24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 하심으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를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귀한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오직 주의 일이 부흥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

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바나바였습니다.

넷째,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11 :22, 13:2-4)

바나바는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구원의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에 가라고 하였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였습니다. 집과 친척과 교회와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약 300마일 -450km) 아마도 생소할 지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교회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나바는 바나바일지 모릅니다. 모두가 지도자만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서 바나바와 같이 순종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넘어져 있는 한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침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도사님 힘을 내십시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나바 같은 인재를 만드는 바나바가 됩시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내 앞에 보이는 이웃, 교육,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앞의 밑알이 되어 씌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작은 실천자 바나바가 되어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National Syncretism of Protestant Ministers' New Year Conference. Includes title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전국 장로연합회 신년하례식', dates '2011년 1월 13일(목) 오전 11시', location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and a list of participants including Chairman Jo Yong-mok and various ministers and elders.